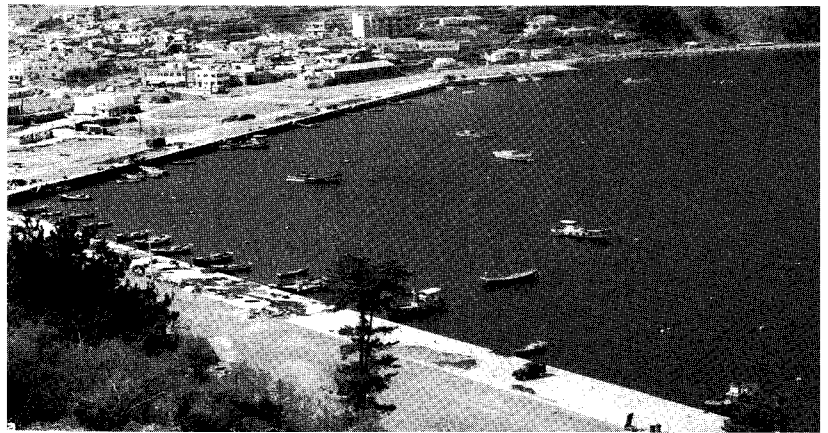


새해 漁港事業 投資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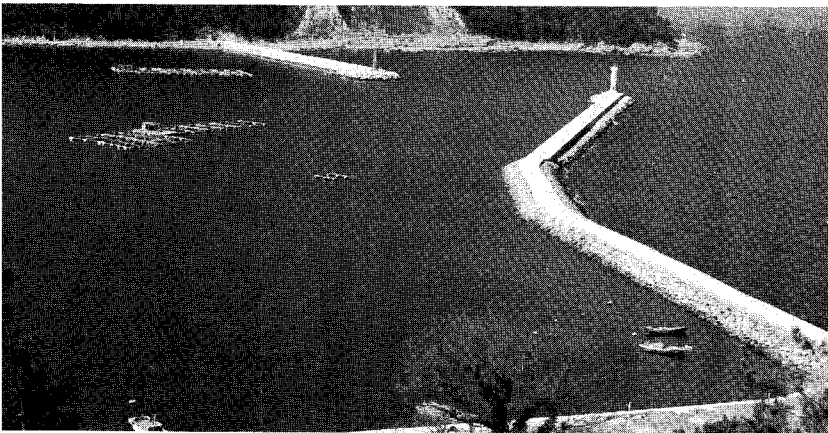
部處別 추진내역을 본다



모든 수산인의 희망인 2000년대
복지어촌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신념속에
출발한 91년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다.
급년 한 해도 여러 차례에 걸친 태·폭풍 등
자연재해와 시멘트 등 자재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열악한 현장 여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60만 우리 어민의 삶의 터전인 어항을
조기 완공하겠다는 사명감속에 불철주야 애쓴
어항인들의 노고 덕택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修築에 424億, 補強에 55億원 漁港法 改正도 마무리

趙 祐 衍 <水産廳 施設局 漁港課長>



91年漁港法개정着手 1·3種港새로 指定도

91년도에는 어항시설사업 투자방향을 어선의 안전수용을 위한 외곽시설 완공축진에 두고 수축사업비 총 490억원을 투자, 방파제 등 5,900m를 시설하여 경북 구계항등 6개항의 기본시설을 완공하였고 기존 시설의 유지, 보강사업에도 45억원을 투자, 강원 아야진항등 4개항의 노후, 취약시설의 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어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또한 태·폭풍으로 인한 어항 피해의 최소화와 합리적인 어항개발을 위하여 소안항 수리 모델실험을 하였고, 시·도지사가 1·3종 어항으로 항종조정을 건의한 60개 2종항 및 소규모항 중 어항법상 지정기준에 대체로 부합되는 27개항을 선정, 지정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23개항을 신규지정 또는 항종을 변경함으로써 어항확대개발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차적인 사업 이외에도 91년에는 어항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획기적인 사업

을 추진하였다.

첫째, 60년도에 제정된 이래 20여년 동안의 급격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따라 우리 수산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어항법을 개정하고자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 92년도에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어항의 기능시설을 확충하여 어항을 중심으로 어로, 양륙, 가공, 출하 등 전 생산과정을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을 겸한 문화 복지시설을 수용하여 도시와의 생활격차 해소와 어민 간접소득을 확대시켜 어민들이 만족감속에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어항시설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어항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공공단체만 시행할 수 있는 어항시설사업에 민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항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항간거리가 평균32km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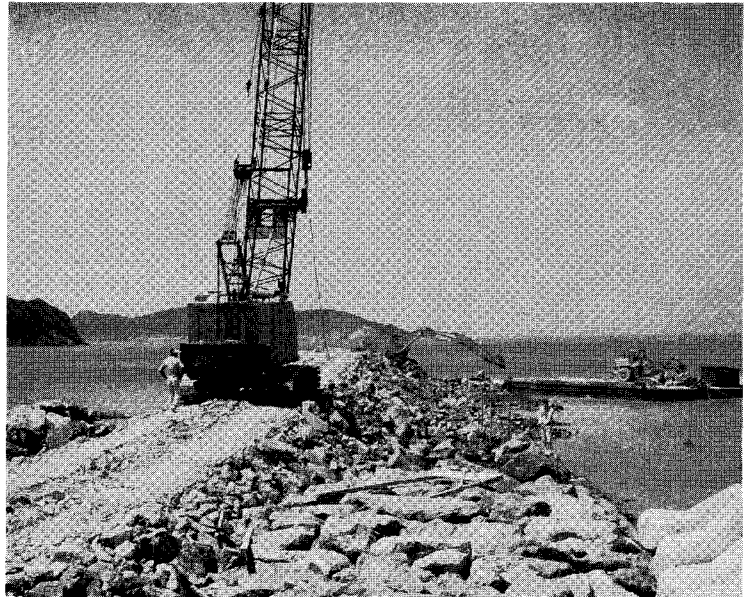
서 너무 멀어 조업시간 확보와 기상이변시 장거리대피 등 어려움이 있어 2000년대까지는 항간거리를 20Km로 단축할 장기계획을 수립, 기틀을 마련하고자 우선 23개항을 1·3종 어항으로 지정, 고시(91.3.)하였다.

셋째, 이제까지 수산청에서 1·3종 어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기능과 설계, 시공감독 등 집행기능을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전문인력 부족으로 본래의 기능인 정책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기존 어항시설에 대한 관리를 담당할 지방기구가 없어 시설물이 훼손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계, 심사, 감독과 어항시설관리 등 집행기능을 담당할 해양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였다.

開發漁港早期完工 新規어항指定 확대

92년도에는 어항시설사업의 투자방향을 이미 계획하여 개발중인 항의 조기완성 촉진과 어항개발확대를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수축사업에 424억원을 투자, 어청도항 등 14개항의 기본시설을 완성하고 유지보강사업에도 55억원을 투자, 노후 및 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으며, 23개신규 지정어항중 15개항의 개발을 착수하고 어항법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어항은 태·폭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민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동적 기능 위주로 개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어항이 적극적, 능동적으로 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어항을 중심으로 어촌지역의 정주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개발중인 83개 1·3종어항의 기본시설을 96년까지는 완성하고 2종어항의 조기 완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 하겠으며, 93년 이후부터는 총 2조 6,4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규 어항을 지속적으로 확대지정, 개발함으로써 2천년대에는 전 어선의 안전수용은 물론 조업시간도 확대될 것이고, 어항내 기능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어획물의 생산, 양륙 및 유통에 이르는 산업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수산물의 부가가치가 제고되어

어민소득이 증대될 것이다.

또한 어촌지역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자연환경과 유물 그리고 관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이며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어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레저시설을 개발하여 관광을 겸한 이상적 복지어촌이 조성될 것이다.

어항은 어민의 삶의 터전이고 어촌지역 사회발전 핵심시설이다. 따라서 어민들이 만족감 속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항을 문화와 복지시설을 겸비한 쾌적한 정주환경이 완비된 복지어촌의 핵심시설로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 모든 어항인들의 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